오전 11시 기상 '집콕' 게임·온라인 수강

■개강 연기 대학생 김군의 하루

부실한 2시간 온라인 수업 짜증
문 걸어잠근 도서관·동아리방
모처럼 찾은 캠퍼스 적막감만
대학가 상권은 매출 줄어 울상

15일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로 29일까지 임시휴관을 한다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전남대 2학년생인 김대학(21·가명)씨는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께 침대에서 일어났다.

평소대로라면 금요일은 늦잠은커녕, 아침도 거르고 움직여야 할 정도로 바쁜 날이다. 올해에는 들어야 할 과목이 많아 첫 수업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잡아놓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이 늦춰지면서 늦게 자고 오후에야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다.

침대·거실·컴퓨터 게임만 하면서 집에만 있다 보니 부모님도 은근히 싫은 기색을 내비쳐 모처럼 같은 과 동기와 외출 약속을 잡았다. 온라인 강의에 필요한 수업 교재도 살 겸 집을 나섰다.

시내버스로 학교에 도착, 구내서점이 있는 학생회관까지 걸어가는데 예전 캠퍼스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곳곳에 핀 매화꽃 주변에는 학생들보다 마스크를 쓰고 걷기 운동을 하는 동네 주민들이 더 많아보였고 학교 건물은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친구를 기다리다 모처럼 들른 학생회관의 동아리방도 '코로나19로 29일까지 출입금지'라는 안내문구가 붙었고 도서관도 문을 걸어 잠궜다.

토익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가 문을 닫았다며 학교 밖을 나서던 다른 과 동기와 늦은 점심을 해결하려고 전남대 후문 식당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창 바쁠 시간이지만 후문 일대는 썰렁했다. 평소 동아리방에서 자주 배달시켜먹던 중국집은 '3월은 배달만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문을 닫았다. 코로나 때문에 임시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가게도 많이 눈에 띄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남대 후문 일대 상가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 평균 수입이 평소의 30%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하루 2만명에 달했던 유동인구도 이달에는 2000명도 못 미친다는 게 진흥공단 분석이다.

소규모 감염 우려가 높다는 PC방에서 모처럼 친구들과 게임 한 판 하려했지만, 마스크가 없다며 출입이 거부됐다. 마스크 구하기도 불가능해 결국 귀가했다.

학교측은 코로나19 때문에 16일부터 2주간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입시 준비 때 보던 유명 강사의 인터넷 강의에 비해 준비성이 떨어진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어야 할 생각을 하면 답답하기만 하다. 소리를 끈 채 온라인 수업만 켜놓겠다는 게 김씨 생각이다. 휴대전화로 게임, 유튜브를 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캠퍼스의 봄이 사라진 지 오래다. 매년 3월 신학기면 신입생들과 복학생, 재학생들로 북적였던 캠퍼스는 인적마저 뜸해졌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들도 오는 16일 개강에 들어가지만 오프라인 강의 대신, 최소 2주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캠퍼스를 찾는 학생들 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원격 수업은 꿈도 못 꾼다. PPT 강의 자료에 교수 목소리만 나오는 방식의 수업을 2시간 동안 듣는 게 전부다. 채팅창으로 질문하거나 마이크를 통해 서로 대화하는 수업은 아예 불가능하다.

전남대의 경우 16일부터 2주간 재택수업을 진행한다. 조선대도 1·2주 차의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호남대·광주교육대·동신대·광주보건대도 마찬가지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 14일부터 원격 수업에 들어갔다.

캠퍼스를 찾는 학생들 발길이 끊기면서 주변 상권도 타격을 입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분석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후문의 상권의 경우 개강 모임과 신입생 환영회 등으로 지난해 3월 유동인구는 하루 2만명에 달했다. 3월 한달 평균 수입도 다른 달에 비해 50% 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하루 2000명에도 못 미친다. 수익도 3월 중순 현재, 한 달 평균 수입의 30% 가량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행우 전남대후문 대학로 상가번영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있지만 대부분 대출지원인 경우가 많아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현금 지원 같은 대책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봄은 왔는데…적막한 산수유 마을

전형적인 봄날씨를 보인 15일, 구례군 현천면 산수유 마을에 노란 산수유꽃이 마을 어귀마다 만개해 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직업계고 실험·실습 안전장비
광주시교육청 구입 예산 지원

광주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의 실험·실습 유해 환경 및 위험 요인 제거,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실험·실습 안전장비 구입 예산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과·전공별로 실험·실습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유해요인 예방을 위해 1인 1안전장비를 구입해 실험·실습실별로 지급한다.

특히 이번 예산지원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용품도 포함돼 학생 및 교원의 실험·실습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직업계고는 개학 후 학생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험·실습실별로 구비하고 있는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전교생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42	달뜸	01:04
해짐	18:41	달짐	11:15

아침 날씨 쌀쌀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겠다.

광 주	구름많음	0/12	보 성	맑음	-3/11
목 포	구름많음	1/8	순 천	구름많음	1/13
여 수	구름많음	2/11	영 광	구름많음	-1/9
나 주	구름많음	-2/11	진 도	구름많음	1/9
완 도	구름많음	1/12	전 주	맑음	-3/11
구 례	맑음	-2/12	군 산	맑음	-2/8
강 진	맑음	-1/12	남 원	맑음	-4/11
해 남	구름많음	-1/10	흑산도	구름많음	3/8
장 성	구름많음	-2/1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	남서~서	0.5~1.5
	먼바다(북)	북서~북	2.0~4.0	남서~서	1.0~2.0
	먼바다(남)	북서~북	2.0~4.0	남서~서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	서~북서	0.5~1.0
	먼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1.5~2.5
	먼바다(동)	북서~북	2.0~4.0	서~북서	0.5~1.5

◇생활지수

감기	보통
뇌졸중	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2:15	07:16
	--:--	19:16
여수	07:53	01:47
	19:51	13:43

◇주간 날씨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16	5/19	9/14	2/16	5/20	8/18	7/18

올 첫 초·중·고 검정고시 5월 9일로 연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첫 학력인정 검정고시가 연기됐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2020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일이 당초 4월11일에서 5월9일로 미뤄졌다.

시험장소 공고와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는 광주는 4월27일, 전남은 4월24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특히 '응시자 유의사항'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응시 제한 대상자와 안전수칙이 안내된다.

합격자는 오는 6월2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는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다중 접촉 행사를 자제하라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초·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들의 상급학교 진학 일정 등을 감안해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국 시·도 교육청 협의를 통해 긴급히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32년 독점 광주 서·북구 쓰레기 업체 선정방식 바뀐다

광주시 서구와 북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업체 선정 방식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8년부터 32년 간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던 업체 선정 방식이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결정될 방침이다. 15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D업체는 지난 1988년부터 2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서구 관내 일반·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한 해 평균 120억여원이 투입되는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1개 업체가 장기간 독점하는 선정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논의 대상에 오른 방식은 구에서 직영, 지방 공단 설립, 경쟁입찰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북구 역시 한 업체가 1988년 이후 32년 동안 사업을 독점하다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옅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